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여름 공동체생활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휴가로 출타중인 가정들,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여름 공동체생활 피드백이 오후 1시 30분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 산돌교회(안영술 목사)에서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사랑방공동체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날인 16일(일)에는 공동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 故 장을순님(딸 장미라, 사위 김종훈) 장례식이 9일(일)에 있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베다니하늘주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무상 집사 (남편 조영길 집사 첫 기일)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32 호

2026년 8월 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네팔 결혼이민자 푸ㅇㅇ가정 상담과 지원활동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한림읍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라이온스 클럽이 공동 주관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일종의 위로잔치로, 가장 큰 이벤트는 모든 가정에 경품을 추첨해서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중 최고 경품은 2가정을 추첨해 고국에 다녀올 수 있는 항공권을 줍니다. 지역축제라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서 온 여성들을 만날 수 있어, 명함을 돌리며 인사도 나누고 교회 공동체와 이주민센터 소개 및 나라별 자조모임을 제안하며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그룹을 교회와 센터로 초대했습니다. 전화를 부지런히 돌리고 강권해서 캄보디아는 10명, 베트남과 네팔은 우선 리더 격인 2명씩을 만나 관계를 맺고 출신 나라의 성향에 맞는 정기적 만남과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캄보디아 이주여성들은 반응도 좋았고 자조모임 결성에 열성적이어서, 지난 한 달간 매주 토요일 6시에 만나 개인적 고충을 들어주고 집단 상담을 진행하며 서서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네팔 결혼이주여성 푸ㅇㅇ와 리더 격인 마ㅇ씨 2명을 함께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마ㅇ씨가 친정 언니처럼 살려주고 있는 푸ㅇㅇ씨 사연을 소개합니다. 푸ㅇㅇ씨의 나이는 29살,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7살 차이, 제주에 온 지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와보니 남편은 중증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일도 거의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술만 마셔댔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상태를 경험한 후에는 그래도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남편에 대한 기대 없이 살려면 아기라도 있어야 살아갈 희망이 보일 것 같아 애를 썼으나 남편의 몸 상태는 이미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심한 우울감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감에 세 차례나 죽으려 했다고 합니다.

네팔이 불교와 힌두교의 나라이긴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삶의 소망을 주려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같은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언니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한 마ㅇ씨가 함께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마ㅇ씨에게 푸ㅇㅇ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니 앞으로 잘 보살펴달라고 권했더니 흔쾌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거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남편이 푸ㅇㅇ씨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마ㅇ씨도 있고, 비록 오늘 만났지만 아주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친정집 같은 '작은이의 벗' 공동체가 있고 목사인 내가 있으니, 제주 사람들이 친근한 이웃이나 어른을 '삼촌'이라 부르듯 나를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언제든지 전화도 하고 힘들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만 기대하고 바라보면 너무 힘이 드니,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이웃과 친구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보고 메모지에 기록해보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잃은 채 힘들게 돈만 벌지 말고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잘 견디며 사는 자신을 위해서도 용기를 북돋고 축복해주는 선물 이벤트(맛있는 음식 먹기, 예쁜 옷 사 입기, 좋은 것 구경하기 등)를 자주 가지라고 권면하며,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죽을 결심을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막막했을까 생각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저와 옆에서 함께 듣는 마ㅇ씨와 푸ㅇㅇ씨 셋이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인생이 너무 애잔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푸ㅇㅇ씨가 너무 안됐어서.....

그렇게 돌려보낸 후 한 주에 한번 정도 푸ㅇㅇ씨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지난주 푸ㅇㅇ씨가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에게 선물을 하라는 권유에 지금은 가장 가까이 자신을 친동생처럼 함께 해주는 마ㅇ씨와 동네에서 소문난 초밥집을 찾아가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을 보내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지난주에는 마ㅇ씨가 집으로 저와 푸ㅇㅇ씨를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상담 이후 푸ㅇㅇ씨의 작은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림읍에 삶을 펼친 네팔 결혼이주여성 모임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네팔 공동체와 조금씩 희망을 회복하는 푸ㅇㅇ씨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은이의 벗 이학산 목사

한주간의 말씀

“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
< 창세기 2장 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89 433 / 436

기도 :

성경 : 고린도전서 10장-11장 1절

제목 :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1-13 기록된 말씀으로 본보기를 삼자

해석: 자기 중심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적용: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자.

14-22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자.

해석: 하나된 교회를 갈라놓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 될 수 있다.

적용: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빠지지 말자.

23-33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해석: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적용: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구하자.

나태주 시인의 시를 공유해 드립니다

1.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2.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3. 내가 너를

슬픔이 없는 사람과를 만나지 말라 슬픔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
슬픔이 없는 사람과를 만나지 말라 슬픔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모른다
네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을 때 아무 수식어 없이 네 곁에 빈 소주
병처럼 굴러다니는 슬픔이 없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
슬픔은 한 권의 책이다

4. 저녁 때

오래 대화하지 않아도 좋고 굳이 손을 잡지 않아도 좋다
다만 저녁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5. 멀리서 바란다

어쩌면 삶의 끝자락에서도 나는 너를 생각하겠지
멀리서 바란다 네가 있는 그곳이 늘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서 발췌했습니다.
비움사랑방 최창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43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22-23

36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창조주의 안식에 동참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창세기 2 : 1-3

419

그루터기사랑방

설교자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82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장성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천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려던 불안함에서 벗어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창조주의 안식에 동참하십시오

창조의 마침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위대한 선언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모든 사역을 멈추고 쉬셨다는 것은 결코 피곤함이나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안식의 허상. 현대 사회는 성과주의에 갇혀서 바쁨을 능력으로 여기고, 쉼을 게으름이나 도태로 오해합니다. 사람의 휴식조차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자극적인 오락으로 쉼을 포장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잠시 안락함을 구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식으로의 초청.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시며 친히 우리와 함께 멎음을 메어주십니다. 힘센 소가 어린 소를 이끌 듯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힘을 뺄 때에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양기모 집사

1학년들의 여름방학 일기

· 7월 17일 금요일 <이빨 빠진 날>

할아버지가 왔다. 할아버지와 놀고 다음날 이빨이 빠졌다. 아프지는 않았는데 신기했다.

· 7월 22일 수요일 <엄마와 데이트>

오늘 서울 로봇과학관에서 로봇인공지능이랑 대화도 해보고 뷔페도 먹고 집에서 밤까지 교회 누나가 놀러와서 숙제를 하나도 못했다.

- 이지음

· 7월 22일 수요일 맑음 <이순신 장군 진남관>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 다음 다리를 가고 이순신 장군 진남관에 도착했다. 거기에 거북선 안을 보여주는 곳에 갔다. 그리고 갔다.

· 7월 23일 목요일 <해양박물관>

해양박물관에 도착했다. 가서 1층으로 갔다. 거기서 놀았고 2층으로 갔다. 잘 놀고 3층까지 갔다. 이제 갈 시간이다. 어디서 가장 재미있게 놀았냐면 1층이었다.

- 차하민

· 7월 17일 금요일 <여행>

동두천 자연휴양림 여행을 갔다. 재미있었다. 놀이터도 갔다. 재미있었다. 수영장도 갔다. 재미있었다. 놀이방에서 피아노도 치고 놀이도 했다. 재미있었다. 편의점도 갔다. 폭포도 봤다.

· 7월 29일 수요일 <수련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재미있었다. 교회 언니 오빠 동생들이랑 놀았다. 재미있었다. 비누방울 놀이를 했다. 재미있었다. 수영장도 갔다. 재미있었다. 두 밤 잤다. 재울이랑 봄이랑 놀이하는 게 재미있었다. 재울이랑 봄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린 아이다.

- 황보아름

- 이지음 -

· 방학이 좋은 이유는? : 엄마 아빠랑 집에서 놀 수 있으니까

· 개학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 쉬는 시간 때문에. 쉬는 시간에 이든지 형이랑 하민이랑 놀고 싶다.

· 방학숙제 중에 제일 재밌는 숙제와 제일 어려운 숙제를 뽑아보세요.

: 줄넘기가 제일 재밌어요. 성경 쓰기가 제일 어려워요.

· 1학년 2학기가 되면 뭘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뭘 잘해내고 싶어요?)

: 숙제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우리글을 잘 해내고 싶어요!

□

- 차하민 -

· 방학이 좋은 이유는? : 매일 쉴 수 있으니까

· 개학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 학교가 재밌으니까. 수업 하는 게 기대돼요.

· 방학숙제 중에 제일 재밌는 숙제와 제일 어려운 숙제를 뽑아보세요.

: 제일 재밌는 숙제는 종이 자르기와 접기 숙제이구요. 제일 어려운 숙제는 두 발 자전거 연습이에요.

· 1학년 2학기가 되면 뭘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뭘 잘해내고 싶어요?)

: 음악 수업에서 노래를 잘 하고 싶어요.

□

- 황보아름 -

· 방학이 좋은 이유는? : 쉴 수 있어서

· 개학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 방학숙제 중에 제일 재밌는 숙제와 제일 어려운 숙제를 뽑아보세요.

: 재밌는 숙제는 연산하기. 어려운 숙제는 없다.

· 1학년 2학기가 되면 뭘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뭘 잘해내고 싶어요?)

: 국어시간을 열심히 하고 싶다.

여름 공동체생활

사랑방공동체 식구로 시작하며, 처음 여름 공동체생활을 대할 때는 색다르고 생소한 공동체생활이었습니다. 사랑방의 여름 공동체생활은 자기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드러내 놓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특색인데,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름 공동체생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루터기로 들어오기 전 해로 기억됩니다. 여름 공동체생활을 통해 주님의 영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저의 여름 공동체생활은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던 나눔의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여름 공동체생활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루터기로 들어오게 된 계기도 아마도 그 해 여름 공동체생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란 주제로 지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를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더욱 기쁨이 가득한 여름 공동체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령사랑방, 무림사랑방 어르신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고, 특히, 교육공동체의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식사 시작으로 세심한 섬김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가운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 되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더욱 풍성해 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가 일회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기쁨의 사랑방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윤호중 집사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191장, 540장

성 경 : 빌립보서 4장 4절~7절

말 씀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후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홍수와 가뭄, 거대한 산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후 위기 속에 더욱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공동체협의회를 위해>
한국공동체협의회 한마당이 8월 17일부터 2박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기독교공동체가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여름 공동체생활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 2) 휴가철을 맞아 흩어져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더운 날씨에 어려움 겪는 이웃이 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여름 공동체생활 이후 뒷정리를 하고 교육관 증축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공동휴가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휴식기간을 자주 가지 못했던 부모님댁으로 가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봐드리는 것으로 쓰기도 하고, 전시를 보거나 아무일 없이 가정에서 쉼 휴식을 취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간 여러 일들과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이 이번 휴식 기간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장영미 전도사>